

I. 우리나라의 人口現況과 展望

趙南勳*

人口增加推移

1948年 政府樹立 以後 南韓만을 對象으로한 人口 센서스는 1949년부터 約 5年間隔으로 實施되어 왔다.

1944년에 1,590萬名에 불과했던 南韓의 人口는 1949년에는 무려 26.7%가 增加된 2,020萬名으로 年平均 4.7%라는 경이적인 增加率을 나타냈으며 이는 1948년의 8·15解放과 더불어 海外同胞의 歸還, 北韓住民의 越南등 社會的인 增加에 基因된 것이다. 이와같은 1944~1949年 期間中の 急激한 人口增加와는 달리 1949~1955年 期間中에 있어서는 6.25動乱으로 인한 婦人의 一時的인 出產抑制과 戰爭으로 인한 死亡率의 增加로 인하여 人口增加率은 1.0%로 減少되었다가 1953年の 休戰과 더불어 婦人의 出產率이 급격히 增加하게 됨에 따라서 1955~1960年の 人口增加率은 年平均 2.9% 水準으로 急增하게 되었다.

1961年 政府가 經濟開發計劃을 樹立한 當時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日本의 植民地統治와 國土分斷으로 인한 經濟構造의 不均衡, 그리고 韓國動乱으로 인한 生産施設의 破壞 등으로 雇傭 및 生産能力의 制約이 深化되어 經濟的 貧困이 극심한 狀態였다. 이와같은 經濟的 與件에 追加하여 社會的으로는 위에서 言及된 바와같이 解放以後 海外歸還同胞과 北韓住民의 越南으로 유래없는 人口의 膨脹期를 맞게 되었고 韓國動乱後에 있었던 出產「붐」의 造成과 國民保健醫療水準의 改善에 따른 死亡率의 減少는 人口增加率을 増大시켜 失業者의 增加와 生活物資의 不足으로 國民經濟를 不安케 하는 要因이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國土面積이 狹小하고 賦存資源이 貧弱한 狀況下에서 國民經濟를 向上시키기 위해서는 經濟開發政策과 더불어 過剩人口의 壓力을 除去하기 위한 人口增加抑制政策의 推進이 要請되었다. 따라서 政府는 1962년부터 着手된 經濟開發計劃에 人口政策을 포함하여 推進하여 왔으

* 韓國人口保健研究院 首席研究員

며 人口增加抑制을 위한 主要手段으로서 出産調節事業과 海外移住事業을 展開해 왔다.

이와같은 政府의 人口增加抑制政策은 消費抑制을 통한 國民經濟의 向上은 물론이고 高度의 經濟成長을 持續하는데 寄與한 바 컸으며 그간의 社會經濟發展은 出産力 低下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서 1960年 센서스에서 2.9%에 이르렀던 人口增加率は 점차적으로 減少되어 1980年 센서스에서는 1.56%로 低下되어 1980年 現在의 總人口는 3,812萬名으로 推定되고 있다(表 1 參照).

表 1. 人口增加推移：1944~1980

年 度	總人口(千名)	年平均增加率(%)	人口密度(名)
1944	15,923	-	68
1949	20,167	47.3	205
1955	21,502	10.1	219
1960	24,989	28.4	254
1966	29,160	26.5	296
1970	31,466	18.8	319
1975	35,280	17.0	351
1980	38,123	15.6	385

資料：經濟企劃院, 人口 센서스 報告書資料

人口動態率變動

表 2 에 提示된 바와같이 우리나라의 出産力은 1931~1935年 期間中 出生率이 人口千名當 45.5名에서 점차 低下되다가 1956~1960년에는 다시 43.0名水準으로 增加하였으며 이는 戰後의 出産「붐」에 基因된 것이다. 1962年 以來 政府家族計劃事業의 推進과 더불어 出生率은 1960年の 43.0名에서 20年後인 1980년에는 23.4名으로 크게 減少는 되었으나 그 減少幅은 最近에 이르러 매우 완만한 減少趨勢를 보이고 있다. 즉 1970年の 出生率은 24.0名으로 1965年の 30.0名에 比하여 約25%가 低下되었으나 1980년에는 1970年과 比較하여 2.5%밖에 低下되지 못하였으며 이와같은 結果는 1950年代에 있었던 出産「붐」의 餘波로 인한 可妊婦人數의 急激한 增加에 基因된 것이다.

婦人의 出産率(TFR)을 보면 1960年の 6.0에서 1982년에는 2.7로 約55%가 減少되었으며 年齡層別로는 30歲以上の 婦人層에서 急激한 出産力減少를 보이고 있다(表 3 參照). 한 分析結果에 의하면 20代의 젊은 年齡層婦人의 出産力低下는 社會經濟의 發展에 의한 初婚年齡의 上昇에 의해서, 그리고 30歲以上の 高齡層婦人의 出産力은 주로 家族計劃과 該간 크게 擴散된 人工流産에 의해서 減少된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즉 婦人의 初婚年齡은 1960

년의 21.6歲에서 1975년에는 23.6歲로 上昇되었고, 婦人の 人工流産經驗率(15~49歲)도 1965年の 11%에서 1982년에는 50%로 增加되었고 同期間中 婦人 1人當 人工流産回數(TAR)도 1.2회에서 3.0회로 크게 增加하였다.²⁾

그간의 出産調節政策이 婦人の 出産力低下에 크게 寄與할 수 있었던 原因은 社會, 經濟, 文化等 諸般側面에서 說明될 수 있으나 가장 根源的인 背景은 1962년부터 4次에 걸쳐 推進되어온 經濟開發計劃에 의한 近代化의 促進에 따라서 子女에 대한 父母의 價値觀이 從來의 子女로부터 父母가 期待했던 子女의 効用價値보다는 子女의 養育에 따른 費用認識이 強調되었고 保健醫療施惠의 擴充과 國民營養水準의 向上으로 嬰兒死亡을 포함한 死亡率이 減少됨에 따라서 願치않는 追加子女가 家族計劃 및 人工流産에 의해서 出生(또는 妊娠)이 防止된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表 2. 人口動態率의 變化推移

年 度	粗出生率	粗死亡率	自然增加率
1931~35	45.5	23.3	19.5
1936~40	43.3	21.4	21.9
1941~45	42.1	19.5	22.6
1946~50	39.2	15.8	24.1
1951~55	41.0	14.3	26.7
1956~60	43.0	13.0	30.0
1961~65	37.0	10.0	27.0
1965~70	30.0	9.0	21.0
1970~75	24.0	7.0	17.0
1975~80	23.4	6.7	16.7

資料：1. 1931~1970年 期間中の 推定値는 人口問題論集18號(1974), 張新奎著 “우리나라人口趨勢現況과 展望”

2. 1970~1980年 期間中은 經濟企劃院, 人口센서스報告書

한편 死亡率은 表 2 에서와 같이 抗生劑를 포함한 醫藥品の 開發導入으로 年次的으로 減少되어 1950年の 15.8에서 1970년에는 9.0으로 低下되었으나, 1975年以後부터는 매우 완만한 減少趨勢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死亡率의 減少에 따라 男女別 平均期待壽命은 1960년에 각각 51.1세, 53.7세였던것이 年次的으로 延長되어 1980년에는 62.7세, 69.1세로 크게 伸張되었다.²⁾

1)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2年 全國家族保健實態調查速報資料.

2) 經濟企劃院, “第5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 人口部門計劃(案), 1982.

表 3. 年齡別出產率 變動推移

年 齡	1960	1971	1976	1982	減少率(60/82)
15-19	35	6	10	12	65.7%
20-24	251	188	147	161	35.9
25-29	326	341	275	245	24.8
30-34	275	234	142	94	65.8
35-39	206	124	49	23	88.8
40-44	97	41	18	3	96.1
45-49	14	3	1	-	100.0
TFR	6.0	4.7	3.2	2.7	55.0

資料：1. 經濟企劃院, 1960年 인구 센서스 資料(1960)

2. 韓國人口保健研究院, 年度別 全國 標本調査資料(1966~82)

地域間 人口分布 및 海外移動

1962년부터 着手된 經濟開發計劃의 推進은 급격한 工業化와 都市化를 招來하게 됨에 따라서 1970年代에 와서는 地域間的 不均衡한 人口分布가 經濟社會發展의 逆機能으로 作用할 뿐 아니라 國民生活의 不便性마저 招來하여 人口政策의 次元에서 人口分散策의 重要性이 擡頭하게 되었다. 특히 人口의 大都市集中現象은 都市의 受容能力을 훨씬 증가할 程度의 急速의인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都市問題를 惹起하게 되었다. 즉 都市化가 都市의 人口吸引(Pull In)에 의한 것이 아니라 農村을 벗어나기 위한 限界農業人口를 都市로 排出(Pull Out)의인 것이기 때문에 人口의 地域間 適不正 問題는 政策的인 關心의 對象이 되었고 그 中에도 서울市를 中心으로 한 大都市의 人口集中防止는 人口政策的인 側面뿐 아니라 國家 安保의인 側面에 있어서도 그 重要性이 크게 부각되었다.

우리나라 市部人口의 比率은 1960年의 28.0%에서 1970年에는 41.1%, 그리고 1980年에는 57.2%로 급속한 都市化가 이룩되었고 특히 1981年에는 서울 및 首都圈과 釜山市에 全體人口의 37.2%가 과도하게 集中되어 있으며 이들 地域의 人口增加는 아직도 높은率로 增加되고 있다. 이와같은 人口의 지나친 偏重은 大都市自體의 過密로 인한 住宅, 教育, 上下水道, 交通, 通信, 保健醫療, 文化, 福祉등 諸 領域에서 內的인 問題의 深度를 더욱 深化시키고 있으며 餘他地域의 相對的인 沈滯에서 오는 不均衡問題를 深化시키고 있다. 특히 全北, 全南, 忠北, 江原등 農業特性이 강한 地域의 絶對人口는 減少되고 있어 農村人力의 不足은 물론이고 國土資源의 効率的活用을 沮害하고 있다.

大都市人口集中을 抑制하려고 하는 政府의 努力은 1964년부터 胎動은 되었으나 一貫性있는 人口分散策의 不在와 現實的인 政策內容의 未洽, 그리고 政府部署中 人口分散을 擔當하는 責任所在가 不明確하여 그간 별다른 成果를 얻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1969年 4月

에 首都圈防衛를 위하여 首都圈人口集中抑制에 관한 各種政策이 활발하게 推進됨에 따라서 表 4 에 明記된 바와같이 서울시의 年平均人口增加率은 1966~1970年期間中の 9.9%에서 1975~1980年期間中에는 4.3%로 鈍化되었으나 서울시의 周邊都市들의 급격한 膨脹을 誘導함으로써 首都圈의 急成長과 空間的인 擴散結果를 招來하고 있다(表 5 參照).

이와같은 狀況下에서 向後의 人口分散策은 우선적으로 서울시의 人口增加速度를 鈍化시키는데 力點을 두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全國土의 均衡있는 成長과 國民生活의 質的水準을 均等하게 提高시킬 수 있는 政策이 持續的으로 強化되어 地域間的 隔差를 縮小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表 4. 센서스期間中 地域別 人口增加推移

年度	人口數(000)			人口構成比(%)			年平均增加率(%)		
	郡部	市部	서울	郡部	市部	서울	郡部	市部	서울
1955	16,240	3,693	1,569	75.5	17.2	7.3	2.1	4.3	9.3
1960	17,992	4,552	2,445	72.0	18.2	9.8	1.2	4.7	7.6
1966	19,373	5,987	3,793	66.4	20.6	13.0	-1.2	5.5	9.9
1970	18,506	7,404	5,525	58.8	23.6	17.6	-0.7	6.0	4.5
1975	17,909	9,890	6,879	51.6	28.6	19.8	-1.8	7.3	4.3
1980	16,278	13,478	8,367	42.7	35.4	21.9			

註：市部人口는 서울시를 除外한 數이며, 年平均 增加率은 指數增加率임.

資料：經濟企劃院, 年度別 人口 센서스

表 5. 首都圈 人口增加趨勢：1978~1981

單位：千名

地 域	1978		1979		1980		1981	
	人 口	增加率	人 口	增加率	人 口	增加率	人 口	增加率
서울市：	7,823	4.0	8,114	3.7	8,367	3.1	8,676	3.7
周邊都市：	1,996	8.1	2,216	11.0	2,380	7.4	2,493	4.8
仁 川	936	7.2	1,044	11.5	1,085	3.9	1,142	5.3
水 原	266	7.1	290	9.1	311	7.1	324	4.3
城 南	324	5.3	345	6.6	376	9.0	388	3.1
議政府	118	2.2	125	5.8	133	6.9	135	1.3
安 養	188	15.3	216	15.1	254	17.3	258	2.0
富 川	163	18.4	196	19.7	221	13.2	246	11.1
釜 山 市：	2,880	6.7	3,035	5.4	3,160	4.1	3,247	2.7

資料：經濟企劃院, 常住人口調査 및 1980 人口센서스

한편 海外人口移動은 이미 言及된 바와같이 8.15解放과 韓國動亂을 前後하여 많은 海外人口移動이 있었으나 1955年 以後에 우리나라 人口中 外國人の 居住者數는 全體人口의 1

%程度로 人口增加率의 變化에 別다른 影響을 미치지 못하였다.⁴⁾ 그러나 1962년부터 우리나라 人口增加抑制政策의 하나로 採擇된 海外移住事業의 結果로 1962~1981年 期間中 海外移住者의 總數는 45萬3千名으로 우리나라總人口의 1.7%에 이르는 人口增加抑制效果를 나타내고 있다(表6參照).

移住類型別로 보면 緣故招請移住(54.9%)를 비롯하여 就業移住(12.2%), 國際結婚(16.7%), 國際入養(14.3%)을 통한 移住가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으며 契約移住(0.9%)나 集團移住(0.03%)는 극히 不振한 實情이고 移住對象國도 全體移住者의 80.8%가 美國에 偏重되어 있다(表7·8參照).

年度別 移住現況을 보면 1962~1971年 期間中에는 年平均 7,050名에 불과하였으나 1972~1981년에는 年平均 38,200名으로 크게 增加는 되었으나 지난 20年間의 海外移住數는 人口學的인 側面에서 人口規模나 構造의 變化에 別다른 影響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最近에 이르러 美國을 비롯한 受民國家의 大部分이 自國의 保護主義에 立脚하여 海外로부터의 移民을 規制하고 있는 現實에 비추어 海外移住를 통한 人口抑制效果는 앞으로 期待하기 어려울 것으로 展望된다.

表 6. 年度別 海外移住人口現況

年 度	總移住 許可者數	年平均 移住者數
1962~66	15,503	3,101
1967~71	55,011	11,002
1972~76	191,449	38,290
1977~81	190,924	38,185
計	452,887	22,644

資料：人口部門實務計劃班，第5次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1982-1986)：人口部門計劃案，1982.

表 7. 移住類型別 移住人口構成比：1962~1981

移住類型	許可者	構成比(%)
緣故招請	248,647	54.9
就 業	55,088	12.2
國際結婚	75,836	16.7
國際入養	64,927	14.3
契約移住	4,075	0.9
集團移住	144	0.03
現地移住	4,170	0.9
計	452,887	100.0

資料：表6과 同一.

4) 洪思媛, 韓國의 人口와 人口政策, 韓國開發研究院, 1978, 10.

表 8. 移住國別 移住人口構成比：1962~1981

移 住 國	許 可 者 數	構 成 比 (%)	移 住 國	許 可 者 數	構 成 比 (%)
美 國	365,823	80.8	프 랑 스	4,473	1.0
카 나 다	21,117	4.7	아르헨티나	4,394	0.9
파라과이	13,204	3.0	日 本	3,520	0.7
브 라 질	10,244	2.2	벨 기 에	2,967	0.6
스 웨 덴	5,380	1.2	其 他	17,035	3.8
덴 마 크	4,730	1.1	計	452,887	100.0

資料：表 6 과 同－

人口構造의 변화

1962년부터 推進되어온 經濟開發計劃과 出產調節事業의 效果로 婦人의 出産力이 현저하게 低下됨에 따라서 0~14歲人口의 構成比는 1960年의 42.9%에서 1980년에는 34.0%로 크게 減少되어 同期間中 이들 年齡層의 扶養比도 80.0에서 54.7로 低下되었다. 한편 65歲以上の 老齡人口는 死亡率減少에 따른 平均壽命의 延長으로 이들 人口의 構成比도 1960年

表 9. 年度別 人口構造의 變化推移

區 分	1960	1966	1970	1975	1980
人 口 數 (000) :					
0 ~ 14歲	10,720	12,683	13,241	13,208	12,962
15 ~ 64 整	13,419	15,516	17,155	20,224	23,712
65 歲 以上	850	961	1,039	1,207	1,449
計	24,989	29,160	31,435	34,679	38,123
人 口 構 成 比 (%) :					
0 ~ 14 歲	42.9	43.5	42.1	38.1	34.0
15 ~ 64 歲	53.7	53.2	54.6	58.4	62.2
65 歲 以上	3.4	3.3	3.3	3.5	3.8
扶 養 比 (%) :					
0 ~ 14 歲	80.0	81.7	77.2	65.2	54.7
全 體	86.2	87.9	83.2	71.1	60.7
可 妊 女 性 人 口 (000) :					
15 ~ 49 歲	5,897	6,579	7,297	8,604	9,830
構 成 比 (%)	47.4	45.5	46.6	49.9	52.7

註 1. 0~14歲 및 65歲以上 人口에 대한 扶養比임.

2. 全體女性人口에 대한 15-49歲女性의 構成比임.

의 3.4%에서 1980년에는 3.8%로 증가하였으나 이들 年齡層의 增加速度는 앞으로 더욱 加速化될 것으로 豫想된다. 이에 따라 總扶養比는 1960~1980年 期間中 86.2%에서 60.7%로 減少되었으나 扶養比의 減少는 대부분이 出産力低下에 의한 幼年人口의 減少에 의해서 이룩된 것이다.

또한 扶養比의 減少는 相對的으로 15~64歲의 勞動人口를 1960年の 53.7%에서 1980년에는 62.2%로 增加시켜 우리나라의 人口構造는 先進國의 類型에 接近되고 있다.

그러나 15~49歲의 可妊女性人口는 1970年代에 이르러 急激히 增加하고 있으며 이는 1950年代의 出産「붐」時期에 태어난 世代들이 이제는 可妊年齡層으로 突入하게 됨에 따라 派生된 結果로서 실사 婦人의 出産力은 低下된다고 할지라도 可妊女性의 絶對數가 增加됨에 따라 과거와 같은 急激한 出生率低下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展望된다. 특히 出産「붐」의 餘波는 周期的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는 人口構造의 變動에 지대한 影響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1980年을 前後한 出産調節政策의 強化가 切實히 要請된다고 하겠다.

人口展望과 向後政策方向

最近 政府에서 設定한 長期人口目標에 의하면 1988년까지 婦人의 出産水準을 2.1로 低下시켜 人口代替水準에 到達토록 한다는 假定下에 第5次 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1982~1986)의 目標年度인 1986년까지 人口增加率을 1.49%로 低下시키고 總人口를 1980年の 3,812 萬名에서 約9.7%가 增加된 4,184萬名으로 抑制할 것을 目標로 하고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人口目標가 計劃대로 達成된다고 할 지라도 人口는 계속 增加하여 2000년에는 5,006 萬名으로, 그리고 2050년에는 6,131萬名으로 增加될 것으로 豫想되기 때문에 國土面積이 협소하

表10. 將來人口推移

單位：千名

年 度	總 人 口	出 生 率	死 亡 率	移 民 率	增 加 率
1980	38,123	23.4	6.7	1.0	15.7
1981	38,723	23.4	6.6	1.1	15.7
1982	39,331	23.3	6.5	1.1	15.8
1983	39,951	23.2	6.3	1.2	15.7
1984	40,578	23.0	6.2	1.2	15.5
1985	41,209	22.6	6.1	1.2	15.3
1986	41,839	22.1	6.0	1.2	14.9
1990	44,226	20.2	5.6	1.1	13.4
2000	50,066	16.9	6.0	1.0	10.0
2050	61,310	13.6	13.6	0.8	△0.8

資料：表 6 과 同一

고 賦存資源이 貧弱한 우리나라의 現實에 비추어 앞으로 人口問題의 深刻性은 더욱 加重될 것으로 展望된다. 특히 社會經濟的 與件變動에 따른 消費性向의 增大로 食糧 및 「에너지」의 需要度는 人口增加率 以上으로 增大될 것이므로 이들 資源의 海外依存度는 날로 加重될 것이고 教育, 雇傭, 保健醫療, 環境汚染等 諸分野에서 需要와 供給의 不一致現象을 加速化시키고, 結局에 가서는 人口의 質의 低下를 더욱 惡化시키게 될 것이고, 특히 人口構成의 變動에 따른 老人問題, 그리고 都市化의 促進에 따른 社會病理 現象은 앞으로 社會問題로서 크게 부각될 것이다.

그러나 現在 政府에서 計劃하고 있는 人口目標의 達成도 여러가지 不利한 社會, 人口, 文化的인 要因으로 因하여 매우 어려울 것으로 豫想된다. 첫째로 1950代에 있었던 出產「붐」의 餘波가 1980年을 前後하여 가장 強力하게 作用하기 때문에 婦人의 出產力은 계속 低下된다고 할 지라도 可妊女性數의 急增으로 因하여 表 10에 提示된 바와같이 1980~1984年 期間中の 出生率은 人口千名當 23水準을 그리고 人口增加率은 1.6%水準을 維持하다가 1985년부터 緩和될 것이다.

둘째로, 우리나라 婦人의 出產力은 지난 20年間 현저하게 低下되어 왔으나 最近에 이르러 2.7 水準에서 停滯狀態에 있어 1988년까지 婦人의 出產率(TFR)을 2.1 水準으로 低下시키고자 하는 目標達成의 展望을 어렵게 하고 있다. 1970년부터 施行되어온 “딸 아들 區別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에 대한 婦人의 態度는 表 11에서와 같이 크게 緩和되어 두子女 規範은 어느정도 形成되었다고 보지만 아직도 殘存하고 있는 男兒選好觀은 婦人의 出產 및 避妊行動에 큰 沮害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즉 婦人이 생각하는 理想子女數는 1976年의 2.8名에서 1982年에 2.5名으로 減少되었으나 아직도 現想男兒數는 1.5名을 固守하고 있고 이와같은 男兒選好觀은 避妊實踐에도 영향을 미쳐 2男을 가진 婦人의 避妊實踐率은 71%인데 比하여 2女를 둔 婦人은 41%로 큰 差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出產力을 低下시키기 위해서는 男兒選好觀의 緩和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보다 強力한 社會支援 施策이 開發導入되어야 할 것이다.

表 11. “딸·아들 區別없이 둘만 낳자”에 대한 婦人의 態度

區 分	1978	1982
贊成한다	49.2%	71.8%
反對한다	18.7	8.1
“둘만 낳자”에 反對한다	2.7	3.5
“性別 區別없이”에 反對한다	20.7	16.6
모르겠다	8.7	-
計	100.0	100.0

資料：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78年, 1982全國標本調査.

表 12. 年度別 理想子女數의 變化推移

區 分	1976	1979	1982
現存子女數	3.2名	3.1名	2.8名
理想子女數	2.8	2.7	2.5
理想男兒數	1.7	1.6	1.5

表 13. 子女의 性別 避妊實踐率 變化推移

區 分	1973	1979	1982
2 男	45%	67%	71%
2 女	8	33	41
2 男 1 女	53	73	83

셋째로, 1982年 調査結果에 의하면 都市·農村別 婦人의 出産率(TFR)은 각각 2.4, 3.3으로 상당한 隔差를 보이고 있어 農村地域의 出産率을 低下시킬 수 있는 強力한 政策手段의 導入이 要請되고 있다. 現在 政府에서는 男兒選好觀의 緩和 및 少子女規範形成을 위주로 한 人口增加抑制 對策을 推進中에 있으나 實際로 出産力이 높고 男兒選好觀이 강한 農村地域 對象者에 대한 社會支援施策이 거의 不在한 實情이다.

넷째로, 우리나라 婦人의 避妊實踐率은 1982年 現在 57.7%로 增大 되었으나 最近에 이르러 避妊實踐率의 增加幅이 크게 완만해지고 있으며 이는 곧 避妊實踐率의 增大는 限界點에 도달되었음을 意味한다고 하겠다. 表14에서와 같이 지난 數年間 政府에서 普及한 막대한 量의 避妊普及實績에도 不拘하고 1979~1982年 期間中 避妊實踐率은 불과 3%의 增加에 지나지 않았고 1976~1979年 期間中의 11%와 比較하여 매우 不振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避妊實踐婦人의 93%(1979年 調査)가 斷産目的이고 避妊中斷率이 높은 狀況下에서 두子女以下の 20代 젊은 年齡層에서 「터울」調節目的으로 避妊實踐을 誘導하고 避妊中斷率을 減少시킬 수 있는 方向으로 既存의 事業推進戰略이 變更改지 않고서는 過去와 같은 家族計劃에 의한 人口效果는 크게 期待될 수 없다고 본다(表-14參照).

表 14. 避妊實態 變動推移

區 分	1976	1979	1982	增 加 率	
				76~79	79~82
經 驗 率	63%	76%	81%	13%	5%
實 踐 率	44	55	58	11	3
中 斷 率	19	21	23	3	2

資料：韓國人口保健研究院, 年度別 全國 標本調査

結論的으로 向後의 人口目標達成은 過去보다 몇배의 努力을 要할 것이고 만일 計劃된 人口目標가 達成되지 못 할 경우 앞으로 社會經濟的 諸分野에 미치는 人口問題의 深刻性은 매우 深化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人口政策은 活用可能한 모든 手段을 動員하여 人口增加를 最大限 抑制할 수 있도록 既存의 出產調節政策을 強化하고 동시에 人口資質 및 分散策等이 綜合的이고 一貫性있게 推進됨으로써 人口의 量的 및 質的인 問題의 改善에 力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經濟企劃院, 第5次 經濟社會發展5個年 計劃(1982-1986): 人口部門計劃案, 1982.
2. 趙南勳, 韓國人口政策評價, 亞細亞政策研究院, 1980. 9
3. 洪思媛, 韓國의 人口와 人口政策, 韓國開發研究院, 1978. 10.
4.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2年 全國家族保健實態調查 速報資料, 1982.
5. 高甲錫外, 1979年 韓國避妊普及實態調查, 家族計劃研究院, 1980. 12.
6. 保健社會部, 家族保健事業參考資料, 1982. 7.
7. 張新奎, “우리나라 人口趨勢現況과 展望,” 人口問題論集, 18號, 人口問題研究所, 1974.
8. 金善雄編, 韓國의 人口問題와 對策, 韓國開發研究院, 1976. 7.